

투데이 칼럼

### 부안해경, 안전한 바다만들기를 염원하며

오복을 누리고 오감을 느끼는 축복의 땅 부안은 예로부터 기름진 평야와 변산반도와 접한 바다가 어우러진 줄길거리, 먹거리가 풍성한 고장이며, 천혜의 자연경관과 더불어 몸과 마음을 힐링할 수 있는 마실길에, 최근에는 대규모 리조트와 펜션단지가 조성되는 등 풍부한 볼거리는 관광객들로 하여금 다시 찾고 싶은 최고의 관광지로 주목받고 있다.

또한 부안바실축제와 부안 정명 600주년 기념행사 등 새로운 관광 이벤트를 개발하고 관광객 유치에 힘쓰며 부안 알리기에 주력한 결과, 관광도시로서의 성장 잠재력을 인정받아 위상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에 부응하여 국민안전처에서는 최근 부안해양경비안전서 신설을 확정하고 개서관니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부안해양경비안전서(신설 단장 총경 전현명, 이하 부안해경)는 국민의 안전 확보와 해양치안질서 확립을 위해 정부직제가 개정되

는 4월 중순 5과 1실 1대 3센터 합정 6척의 기구로 신설되며, 부안에서 고창에 이르는 약 2683.2km 해역의 해양치안을 담당하게 된다. 그동안 관련기관이 부재해 소홀했던 바다와 도서지역에 안전과 치안을 확보할 수 있는 경사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지금까지 부안지역 주민들은 해양여부와 심각성조차 모르고 있다. 50여km 떨어진 군산해양경비안전서를 방문해야 했으나, 부안에 해양경비안전서가 신설됨으로써 부안지역 주민들은 물론 고창 정읍, 김제 등

인근지역 주민들의 민원 편의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해경직원들의 부안 전임으로 유동인구 증가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기대된다.

물론 부안해경이 지역민들의 오랜 바람과 관련기관의 끊임 없는 노력으로 개서되었지만 새민금 개발과 맞물려 부안이 물류와 관광의 중심지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청사부지 및 관사확보, 복지시설 확충, 전용부두 증설 등 관련기관의 지대한 협조가 필요한 때이다. 또한 국가안보와 해양주권수호,

국민의 안전 확보 등 본연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라북도도와 부안군 부안군회의의 행정적인 지원도 중요하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 지역 최악의 참사로 위도에서 발생한 서해침몰호 사건을 꼽는다. 당시 292명이라는 엄청난 희생자를 낳아 온 국민의 가슴을 아프게 하였으며, 군민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이후 관광객이 감소하고 오랜 기간 지역경제가 침체되는 사고 후유증을 겪게 되었다. 이는 해양치안 활동이 경제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미치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이제 부안해경이 군민안전과 해양치안을 위해 노력하는 이상 부안군에 더 이상의 불행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필자는 부안군회의 의장으로서 경의를 표하며 부안해경이 지역주민들과 함께하는 해양치안 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해 본다.

임기태

부안군의회 의장



독자제언

#### 공공서 주취소란 공권력 침해 행위

오늘도 밤도 어김없이 파출소에는 술에 만취한 주취자가 찾아온다. 별로 반감지 않은 손님이지만 국민의 신체, 생명, 재산을 보호한다는 일념으로 경찰관들은 그들의 어려움을 함께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주취자들은 공공서에서 행패를 부리는 등 경찰관의 업무를 방해한다. 이런 행위들은 공권력에 대한 위협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경찰력을

필요로 하는 시민들에게 되돌아간다. 지난 2013년도에 정부는 '공공서 주취소란'이라는 법규를 신설해 근절의 의지를 보였지만 그들은 법규의 존재여부와 심각성조차 모르고 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술을 권하는 우리나라의 음주문화가 한몫 했고, 본인의 음주습관을 알면서도 자제를 하지 않는 것 또한 문제가 된다. 김지훈 군산경찰서 수송파출소4팀 순경

독자제언

#### 농번기 어르신들 해진 후 농기계 운행 삼가야

시골에서는 농번기 준비로 경운기, 트랙터, 이륜차 등을 운전하는 어르신 분들이 많이 증가되는 시기이다. 이로 인해 어르신들의 교통사고 예방 또한 절실하다. 사고 원인으로는 도로 구조적인 면, 환경 등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무엇보다 운전자와 보행자의 좋지 못한 습관이 교통사고의 가장 큰 요인이라 생각한다.

노인 교통사고는 시력, 청력, 상황 대처 능력 부족 등으로 다른 교통사고에 비해 사망이나 중상이 많으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이 시급하다. 경찰에서도 노인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인정, 마을회관을 찾아가 노인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농기계 반사관 부착, 어르신들에게 야광팔찌, 안전모 배부 등 여러 방면으로 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경찰의 노력만으로

는 한계가 있다. 어르신 스스로가 교통사고 예방하려는 자세와 운전자들의 올바른 운전습관이 필요하다.어르신 교통사고 원인 중 가장 큰 것은 어르신들의 무단횡단이다. 교통안전 의식부족이 교통사고 사망이라는 결과까지 초래하고 있다.

어르신들은 위험에 대한 인지능력이 떨어져 교통사고의 위험에 더 쉽게 노출되어 있으며, 야간에는 눈에 잘 띄지 않는 옷차림으로 다녀 운전자 시야에 식별 능력을 떨어지게 하므로 더욱 위험하다.

어르신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일몰 후 농기계 운행을 최대한 자제하고, 무단횡단 절대 금지, 안전장구 착용 등 교통법규와 질서를 지키려는 노력이 있어야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순창서 교통관리계장 윤근영

독자제언

#### 순간의 잘못된 판단과 행동으로 성범죄자 되질 않길

성폭력 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 보호를 위해 그간 일부 성폭력 범죄는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거나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었지만, 피해자의 고소나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가해자를 엄벌할 필요성과 친고죄 규정으로 인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고소 취하와 합의를 종용하는 등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친고죄·

반의사불벌죄 규정을 전면 폐지하였다. 또한 아동·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경우 장기간 경과 후 발견되는 특성을 감안해 공소시효 배제 대상 범죄를 종전 5년 및 10년에서 15년으로 확대했다. 따라서 해당 범죄의 경우 아무런 시간이 흘렀다고 해도 처벌을 면치 못하게 되었다. 조홍복 진안경찰서 미령파출소 경위

## 전주매일

독자 여러분의 의견이 담긴 기고와 투고를 기다립니다.

(우)600-912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8-8 승주빌딩 4층

## 사설

### 총선 당선인 지역발전 목소리내야

이번 총선에서 도민은 바라는 바가 무엇인지 확실히 보여줬다. 그것은 새로운 변화가 아니고 그 무엇이든가. 그 새로운 변화를 원하는 말바다에는 지역 발전에 대한 오랜 열망이 있다. 도민들은 지역 발전을 원하고 원했던 만 오랜 세월 그것은 바람은 바람 그 자체로 그칠 뿐이었다. 그것은 도민의 가슴 속에 응어리가 됐다. 이제 새로운 바람을 타고 지역 발전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 그 지역 발전의 목소리는 무슨 특별한 게 아니다. 지난날 누차 말해왔던 것이니 말이다.

국도의 균형 발전론에 힘을 실어야 한다. 모든 지역이 고루 발전해야 하는데 지난 수십 년동안 그게 아니다. 전국의 광역 시도를 비교해보면 잘 나가는 지역과 못 나가는 지역이 뚜렷하다. 발전이 잘 되는 지역은 탄력을 받아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데 뒤처진 지역은 갈수록 낙후된 모습을 보여 인구가 줄고 있다. 이런 모습은 국토의 균형 발전론과 맞지 않다. 이산과 현실 사이에 괴리가 크다. 그러므로 전북도는 지역 차별은 더 이상 안 된다며 제 목소리를 내야 한다.

전북도는 오랜 낙후 때문에 생긴 도민의 가슴 속 응어리를 생각

해야 한다. 영남과 호남이 확연히 비교 구분돼 버린 지는 오래됐고 이런 충청 지역하고 비교해도 한참 뒤쳐져 있다. 그게 한 두 해도 아니고 수십 년 동안 그대로이니 낙후가 될 수밖에 없게 돼 있다. 저번에 본보가 사설을 통해 거듭 언급했던 예산이 문제이다. 해마다 예산이 증액됐지만 그에 대해 아무런 의미를 찾을 수가 없다. SOC예산만 해도 대구와 경북 지역 쪽은 퍼주고 있으면서 호남 지역은 핏글거리듯 인색하게 대해왔으니 말이다. 전북도는 이제 국토 균형발전론 명분만 반하고 있음을 잘 알 것이다. 그러므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제 전북도는 할 말을 해야 한다. 그것은 지역의 낙후를 생각할 때 당연하다. 전북도는 잘 판단해야 한다.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해도 변화가 미미하다면 도민들이 볼 때 직무를 소홀히 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전북도는 도민들이 더 이상 유감을 말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러려면 구체적으로 보여지는 게 있어야 한다. 현안 사업들을 합차게 추진해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 전북도, 제몫을 챙겨야

이제 전북도는 보통 이상의 열정을 가져야겠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반복해 주문했던 게 있는데 도민의 뜻에 부응해야 한다는 것이 그것이다. 전북도는 이제 지역 발전을 위해서 더욱더 뛰어야 한다. 우리 지역은 아직도 그 발전상이 시원치 않다. 다른 고장은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데 우리 전북 지역은 왜 그렇게 안 되는지 궁금하다. 고장의 발전에 무한 책임을 져야 하는 전북도의 책임이 크다.

전북도는 지역 발전을 위해서 제 몫을 챙기는데도 역척스러움을 보여야겠다. 전북이 보다 발전하기 위해서는 제 몫을 온전히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지역의 발전상이 시원치 않다고 여러 번 지적했거니와 아직도 아쉬운 게 하나 없다. 우리 전북 지역이 조금은 발전했구나 싶을 때, 다른 지자체의 발전상과 비교해보면 이쪽의 발전은 발전 같지가 않다. 다른 광역 지자체 지역은 거주 인구가 나날이 불어나고 있는데 이쪽은 그렇지 못하다. 전북 지역의 거주 인구가 시군에 따라서 답보 상태이거나 오히려 줄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는

가 그것은 발전상이 시원치 않은 탓이 아니겠는가.

전북도는 이제 열정을 가지고 지역 발전에 매진해야 한다. 지난 해 올해치 예산 6조원 시대를 연 것과 관련해서 희색을 나타내는 이들이 있었는데 공경할 수 없다. 해마다 예산이 증액되는 것은 당연지사이기 때문이다. 예산이 증액된다 해도 그게 소액이라면 그 어느 누가 만족을 말하겠는가. 전북도는 고장의 낙후와 관련하여 도민들의 상처가 깊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지역 발전은 꾸준한 작업이 돼야만 한다. 내년도 예산 증액을 위해서 브레인트의 치밀한 작업이 있어야겠다는 주문이다.

전북도는 지역 발전에 매진해야 한다. 전북 발전 청사진이 제대로 그 실체를 보이려면 큰 폭의 예산 증액이 절실하다. 그러므로 증액된 예산이라도 이쪽에서 원하는 만큼의 증액된 것이라야 한다. 예산이 증액된 것에만 의미를 두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그리고 새로운 대형 프로젝트 사업 발굴이 활발해야겠다. 다시 말하거니와 전북도는 열정을 가지고 지역 발전에 뜨겁게 매진해야 한다.



##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 전주매일